

보고 듣는 '요놈' 마음챙겨라

잡이 깨어 눈을 뜨면 잠 들기 전 화두 들던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고(ego)의식이 사라진 '무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무아와 깨달음, 해탈의 상관성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백장 선사는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다. 그 본체가 참되고 영원함을 드러내니 문자에 구애되지 않네[靈光獨耀 迥脫塵塵 體露真常 不拘文字]’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에 거리낄 것이나, 막고 방해할 것이 없다는 뜻의 ‘심무가애(心無罣礙)’로 표현합니다. 주관과 객관으로 나뉜 현상세계에서 벗어났을 때 무아를 체득하고 대무심의 경지에 듭니다. 무아라 해서 아무 것도 없고 목적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묘용의 세계입니다. 부설 거사가 열반송에서 ‘눈으로 보는 바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로 듣는 소리 없으니 시비도 끊겼네. 분별과 시비일랑 모두 놓아버려, 다만 마음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할 뿐 [目無所見無分別 耳聽無聲絕是非 分別是非都放下 但看心佛自歸依]’이라고 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본래무입물(本來無一物)’이라고 하셨지만, ‘오유입물(吾有一物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이라고도 표현하셨지요. 정반대의 표현 같지만 무아, 무심의 상태는 이렇게 중도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아와 무심의 이치를 잘 알면 실제 참선공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남악회양 스님이 처음 육조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질문에 막혀 8년만에 도를 깨치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답합니다. ‘설사 한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남악회양 스님은 ‘뉘야 증득함을 없지 않으나 물들지 않습니다(修證即不無 汚染即不得)’ 하고 답했습니다. 본래부처, 참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한물건도 없어서 본래 깨끗해서 오염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들이려야 물 들일 수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심무가애’ ‘영식독로’ 한 자리입니다. 덩 빈 허공과 같이 실체가 없지만 불생불멸하며 있는 그대로 여려한 세계인 것입니다.”

-영식(靈識)이 독특한 상태를 진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이 힌두교의 아트만(atman)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상(我相)이 떨어져 나간, 영식이 독특한 무아, 무심의 경계는 하나의 본래심이 오롯이 드러난 경지로서 텅 빈 공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는 그 자리를 못 보면 ‘잠 진(眞)’자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의 근본 가르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칫, 영원한 실체로서의 아트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진아는 무아, 연기사상이 뒷받침되어 그 어떠한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에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무심의 경지에서는 무아니, 진아니 하는 어떠한 견해도 없어야 합니다. 깨달았다는 한 생각, 하나의 상(相)이 떠오른다면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대무심의 경지는 바보나 목석과 같은 경계가 아니라 태양보다 더 밝고 생생한 지혜광명을 쓰면

고 하셨습니다. 일체의 명색(名色)이 끊어져 대무심지에 들면 똑같이 보고 듣고 감각하며 살지만 늘 여여해서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모든 법문이 마음 병 다스리는 약이라 했습니다. ‘나에게 마음이 없는데, 무슨 약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런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물론, 최상승 근기에 맞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입장에서는 뒤를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업습(業習)을 지닌 중생의 입장에서는 수행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서도 썩이 없는 언어와 생각을 초월한 경계인 것입니다.”

일오 스님은 <상후타니까야(장야함) 우다나경(자설경)>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초기불교에서도 대승불교의 본래심, 불생불멸 하는 열반의 세계를 드러낸 법문이 적지 않다고 하신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처(依處)를 여의고, 전생(轉生: 윤회)을 여의고, 대상을 여의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일오 스님은 초기법전을 열람하다 보면, 말끝에 단박 깨닫는[言下大悟] 일이 부처님 당시나 조사스님 회상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된다고 하신다. 이는 자성이 본래 청정해서 가능한 일임은 물론이다.

“직하(直下)에 무심하면 뒤를 필요도 없습니다. 육조 스님은 그래서 ‘보리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그대로 쓰고 살면 부처를 이룬다[菩提自性 本來清淨 但用此心 直了成佛]’

그렇다면, ‘본래부처’의 도리를 자각한 수행자는 현실적인 삶과 수행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이에 대해 스님은 달마 스님의 법문에 자세한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달마 대사는 <이입사행론>에서 마음의 이치를 깨달은 후 네 가지로 실천수행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 과거의 업보임을 알고 인욕하는 보원행(報冤行), 좋고 나쁜 인연이 닥치더라도 모두 내가 짓고 받는 것임을 알아 마음에 풍요가 없는 수연행(隨緣行), 밖으로 도를 찾아 헤매지 않고 본래 이 마음에 구족해 있음을 알고 뒤는 무소구행(無所求行), 자성정정의 이법에 따라 적당한 6바라밀행을 닦는 청법행(淸法行)이 그것입니다.”

1300여년 전 문을 연 동리산문의 가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며 하산하는 길을 봄비가 촉촉하는 것만 같다. 빗소리가 마치, 마조 스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그대가 심지법문(心地法門)을 배운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法要)를 설한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도 같다.”

글·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1. 히이에산 사카이(酒井) 스님

12년 전 한·중·일 불교대회 참석 차 일본을 갔다가 불교춘추사 최석환 사장 등 한국불교계 관계자들과 함께 히이에산 방실곡 안락유원에 주석하는 사카이 스님을 전경했다. 사카이 스님은 일본에서 회봉(廻峰: 도처의 성보를 참배하며 정진하는 수행)으로 유명한 선지식이다.

스님을 찾아보기 전 일본불교 관계자는 사카이 스님이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인근 폭포에서 목욕 후 예불, 독경, 염불, 명상 등을 사시마지까지 하고 바로 기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손님을 맞는 시간은 오후 2~5시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행이 사카이 스님을 찾은

가를 맞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이 자살했다는 비보에 부대에 복귀하지 못했다. 당시 밤낮 없이 술독에 빠져 지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나도 따라 죽을 양으로 히이에산으로 올라갔다. 나무에 목을 매려는 순간 채소밭에 거름을 주고 있던 스님이 ‘이 사람아, 죽을 힘이 있으면 내 일이

끼 공양을 했다. 그렇게 사카이 스님은 1000일간 회봉 수행을 봉행했다.

스님은 “어떤 이들은 100일 회봉을 열 번 마친 사람이라 해서 ‘일본 최고 율사’ 등으로 추켜올렸지만 그런 세간의 평가가 들릴수록 오직 아내를 편안하게 해 주지 못한 죄가 떠올랐다. 저는 지금 고집스러운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자로서 일생을 참회하며 지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회봉 수행 이후 히이에산 방실곡에서 30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행정진에 매진했다.

스님은 “회봉 후 동경까지 도보 행각을 하고 110여 절과 불상 등을 마저 참배한 뒤 바깥에 나간 일이 없다”고 말했다.



불교 성지로 유명한 히이에산의 일본 천태종 본산 엔라쿠사.

천일간 하루 일식하며 252개 절 참배하는 회봉 수행해

시간은 저녁 8시 무렵이었다. 그럼에도 스님은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일행을 위해 문을 열었다.

직접 본 사카이 스님은 나이가 세수 70세가 훨씬 넘었지만 60세가 다 된 나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다. 함께 갔던 불교춘추 최 사장이 스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십니까?”

“세월을 잊고 살기 때문에 늙고 젊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카이 스님은 38세에 자살한 부인의 얘기를 꺼내며 출가 계기를 밝혔다. 대개 일본 스님하면 대저승으로 이해하지만, 사카이 스님을 비롯한 스님 문중은 독신승이었다. 스님은 일본에서는 ‘자신 같은 독신승을 비구승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구는 걸식하며 분소의를 입어야 하지만 일본의 독신승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카이 스님은 “군 생활 중 휴

라도 거들어 주고 난 후 죽소’라고 말을 건넸다”고 회고했다. 그 인연으로 사카이 스님은 출가자의 길을 걸었다.

스님은 “그 노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3년 간 농사를 지으며 풍거름을 주는 일을 거들었다. 어느 순간 은사스님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마음 먹은 그 날부터 사스님에게 고한 뒤 하산했다. 이후 스님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히이에산 전역의 252개 절과 불상을 참배하는 회봉 수행을 시작했다. 수행과정은 가사 장삼과 대밭모자, 짚신, 그리고 진언집만을 소지한 채 한겨울 100일 간 108사찰에서 각각 다른 진언 108편을 외우고 증명명패를 함에 넣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스님은 밤 11시엔 출발해 히이에산 주위 약 50리를 참배하고 오후 5시에 유원에 도착해 그제야 한

직접 만나 본 스님은 계를 지켜도 지킨다는 생각이 없고, 일종식(점심 한끼만 먹고 일체의 곡기를 끊는 수행)을 하면서도 일종식을 한다는 생각이 없으며, 도를 닦아도 닦는다는 생각이 없었다.

사카이 스님은 끝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옛 조상을 생각해 생연(生緣)이 생기기 이전 참 마음을 되새기고, 물들인 옷을 입고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거리의 행자가 됐던 것을 생각하되 자신이 밖에 나가 탁발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밥을 빌어먹지 못하면서도 비구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도를 닦지도 못하면서 수행자인 척 하는 것을 ‘명자비구’(名者比丘라 한다. 명자비구가 넘치는 세상, 일행의 마음에 진실로 부끄러움을 주신 분이 바로 사카이 스님이었다.

신용신인(신인)가수
 ■재량: 수평(상하)변동
 ■높이: 1.5m(상하)변동
 ■중: 9.415ton
 ■길이: 5.5m
 ■중량: 2.0m
 ■무게: 2.5kg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륜대(운장대)

법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

법륜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륜대에 봉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륜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봉장할 수 있어 사찰 경계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장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0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사찰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낼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